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최근 10년간 동남권 경제활동참가율은 59.1%에서 61.3%로 상승했다. 고령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노동수요의 경우 지역경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수가 조선업 등 주력산업 고용 부진으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금년중에도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의 고용 부진 현상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년 1~5월중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율은 -3.8%로 서비스업 -0.4% 보다 감소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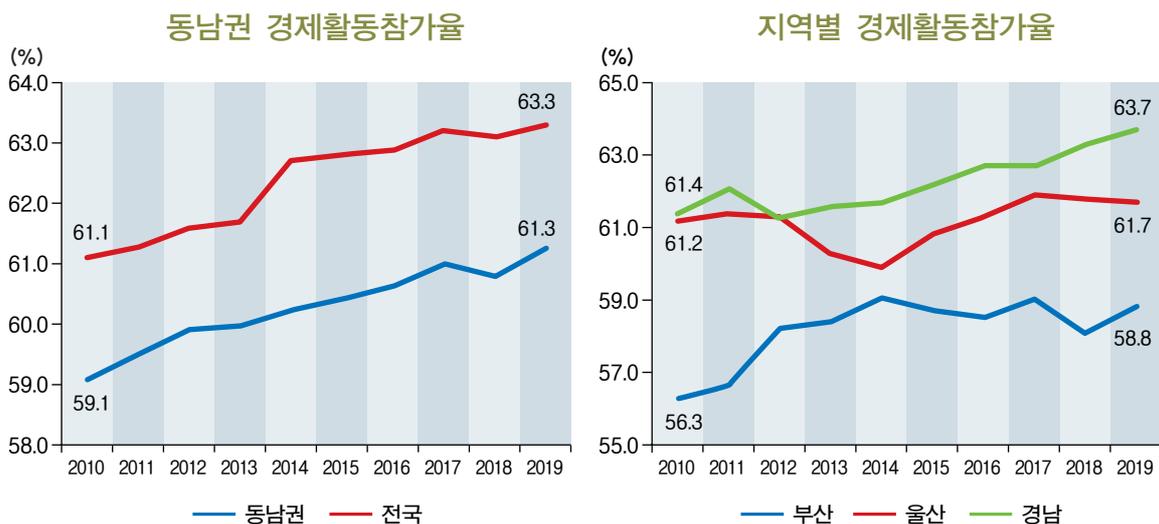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 안정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자리 감소와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구직단념, 훈련부족 등으로 이력현상(hysteresis)이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사간 협력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아울러 직무교육, 취업 지원 확대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10년간 노동공급 확대

동남권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2010년 59.1%에서 2019년 61.3%로 2.2%p 높아졌다. 생산가능인구는 같은기간 5.1%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경제활동인구가 두 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9.0%)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는 오히려 증가세를 시현하는 등 지역 노동공급 확대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 56.3%에서 2019년 58.8%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2.5%p)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경남이 같은기간 61.4%에서 63.7%로 2.3%p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울산의 경우 61.2%에서 61.7%로 0.5%p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국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기간 61.1%에서 63.3%로 2.2%p 상승하며 동남권과 동일한 상승 폭을 보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동남권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료 : 통계청

1) 동남권 생산가능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변화

- 생산가능인구 : 645만명(2010년) → 669.8만명(2014년) → 679.8만명(2017년) → 678.1만명(2019년)
- 경제활동인구 : 381만명(2010년) → 403.4만명(2014년) → 414.6만명(2017년) → 415.4만명(2019년)

고령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인구 증가

동남권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0년간 34만 4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19년 중 고령층(60세 이상)이 31만 5천명 늘어나면서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92%를 차지했으며 같은기간 증가율은 72.6%에 달했다. 청년층(15~29세)과 중장년층(30~59세)의 경우 같은기간 각각 4천명과 2만 3천명 늘어나는데 그치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는 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데 주로 기인한다. 동남권 고령화율³⁾은 2011년 11.2%에서 2019년 16.4%까지 높아졌다. 현추세가 지속된다면 2024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10년 155만 5천명에서 2019년 175만 7천명으로 20만 2천명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13.0%에 달했다. 같은기간 남성이 225만 5천명에서 239만 7천명으로 14만 2천명(6.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증감 및 증가율

(천명, %)

구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청년층 (15~29세)	4 (0.7)	9 (3.4)	-9 (-10.0)	4 (1.8)
중장년층 (30~59세)	23 (0.8)	-81 (-6.6)	24 (5.8)	80 (6.9)
고령층 (60세 이상)	315 (72.6)	152 (87.9)	39 (95.1)	124 (56.4)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 및 증가율

(천명, %)

구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남성	142 (6.3)	6 (0.6)	23 (6.7)	113 (11.8)
여성	202 (13.0)	76 (10.8)	31 (15.6)	95 (14.5)
전체	344 (9.0)	82 (4.9)	54 (10.0)	208 (12.9)

주 : 2010년 대비 2019년 증감

()내는 증가율

자료 : 통계청

2)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80만 2천명에서 2019년 282만 5천명으로 0.8%, 청년층은 같은기간 57만 6천명에서 58만명으로 0.7% 늘어나는데 그침

3) 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UN은 고령화율 수준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Aging Society), 고령사회(14% 이상, Aged Society), 초고령사회(20%이상, Super-Aged Society)로 구분

노동수요는 주력산업 부진으로 약화

지역 노동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수요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1년 2%대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8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동남권 실업률도 2010년대 초반에는 3%를 밑돌았으나 2019년에는 3.8%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노동수요 부진은 서비스업 개선세가 미약한 가운데 조선, 화학, 철강 등 동남권 주력산업의 업황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등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동남권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2년 이후 2%를 하회하는 저성장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고용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효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용 안정성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0년간 일용근로자(-30.2%) 및 임시근로자(-13.8%)는 감소하였으나 상용근로자⁴⁾는 3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⁵⁾.

동남권 취업자수 증가율 및 실업률



주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자료 : 통계청

동남권 종사자지위별 취업자수 증가율

구분	(천명, %)		
	2010년	2019년	증가율
자영업자	856	861	0.6
상용근로자	1,605	2,127	32.5
임시근로자	761	656	-13.8
일용근로자	275	192	-30.2

자료 : 통계청

4)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함
5) 상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비정규직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상용근로자 증가가 고용의 질 개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음. 다만 같은기간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감소하고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과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고용 안정성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

[참고] 동남권 고용현황

(만명)

구분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총인구	792.4	341.4	114.8	336.3
생산가능인구(A)	678.1	296.0	96.7	285.4
경제활동인구(B)	415.5	174.1	59.6	181.7
비경제활동인구(C)	262.6	121.9	37.0	103.7
취업자(D)	399.6	167.6	57.1	174.9
실업자(E)	15.9	6.5	2.5	6.9

주 : 2019년 기준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B) / 생산가능인구(A) × 100

※ 고용률 : 취업자(D) / 생산가능인구(A) × 100

※ 실업률 : 실업자(E) / 경제활동인구(B) × 100

■ 생산가능인구(A)

- 만 15세이상 인구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지무요원,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 등 제외

■ 경제활동인구(B)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 활동 중에 있는 사람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

■ 비경제활동인구(C)

- 조상대상 기간에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사람

※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 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사람, 구직단념자 등

■ 취업자(D)

- 조상대상 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 실업자(E)

-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산업별 취업자수, 제조업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증가

동남권 취업자수는 2013년 386만 5천명에서 2019년 399만 6천명으로 3.4% 늘어났다. 제조업 취업자수는 2013년 93만 6천명에서 2019년 85만 6천명으로 8.5%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이 같은기간 247만 8천명에서 267만 2천명으로 7.8% 늘어난 것이다⁶⁾.

서비스업 증가세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난 데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는 같은기간 취업자수가 119만 1천명에서 139만 5천명으로 늘어나며 17.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같은기간 86만 6천명에서 86만 2천명으로 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도 부산, 울산, 경남 모두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제조업 취업자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19년중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경남(15.9%)이 가장 큰 폭을 늘어났으며 다음으로 울산(10.4%), 부산(1.1%) 순이었다. 제조업 취업자수의 경우 울산(-10.2%)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남과 부산은 각각 -9.6%, -6.0%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동남권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천명, %)

구분	2013년	2019년	증가율
전체	3,865	3,996	3.4
제조업	936	856	-8.5
서비스업	2,478	2,672	7.8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866)	(862)	(-0.5)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1,191)	(1,395)	(17.1)

지역별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천명, %)

구분	부산	울산	경남	
제조업	2013년	302	196	438
	2019년	284	176	396
	증가율	-6.0	-10.2	-9.6
서비스업	2013년	1,230	316	932
	2019년	1,243	349	1,080
	증가율	1.1	10.4	15.9

자료 : 통계청

6)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역별·산업별 취업자수는 2012년 이전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2013년부터 분석

제조업 유형별 고용은 주력제조업에 편중 지식집약, 노동집약, 자원기반 제조업 모두 전국보다 비중 낮아

동남권 제조업의 유형별 고용 비중(종사자수 기준)을 살펴보면 주력제조업이 2018년 기준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원기반제조업(22.4%), 노동집약 제조업(7.8%), 지식집약제조업(7.1%) 순으로 조사되었다⁷⁾.

주력제조업은 2010년 61.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전국이 같은기간 4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바이오, IT 등 첨단형 일자리인 지식집약제조업의 경우 2010~18년중 지역내 비중은 7% 정도에 그치면서 18~19% 수준인 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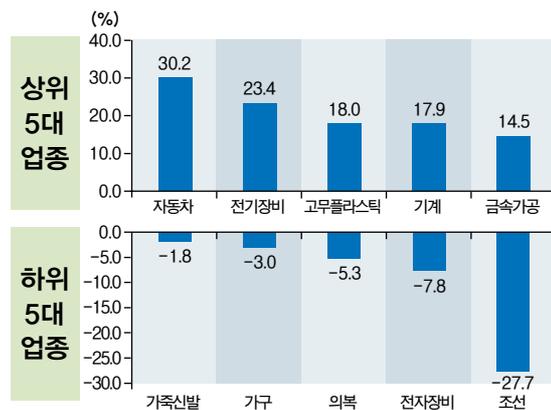
2010~18년중 동남권 고용기여율 상위 5대 업종중에서도 자동차, 전기장비, 기계, 금속가공 등 4개가 주력제조업 유형에 속한 업종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고용기여율이 낮은 하위 5대 업종은 가죽신발, 가구, 의복 등 노동집약제조업 유형에 속한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유형별 고용비중 변화

구분	동남권		전국	
	2010년	2018년	2010년	2018년
지식집약 제조업	7.6	7.1	19.1	18.2
주력 제조업	61.6	62.7	40.7	42.8
노동집약 제조업	9.4	7.8	14.8	12.7
자원기반 제조업	21.4	22.4	25.5	26.3

주 : 제조업 내 종사자수 비중
자료 : 통계청

2010~18년중 제조업 업종별 고용 기여율



주 : 고용기여율은 동남권 제조업 전체 종사자수 증감 대비 업종별 증감
자료 : 통계청

7) 산업 구분은 통상 최종제품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구분되나 McKinsey Global Institute(MGI)와 산업연구원에서는 통상적인 산업구분 보다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유형화가 정책적으로 보다 유형하다고 제시. 이에따라 산업 유형을 제품의 차별화 정도와 교역성(산업부문의 총산출대비 수출입 비중)을 기준으로 지식집약제조업, 주력제조업, 노동집약제조업, 자원기반제조업으로 분류

서비스업 유형별 고용은 로컬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아 비즈니스서비스업 일자리는 전국대비 부족

동남권 서비스업 유형별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로컬서비스업 비중이 47.9%(2018년 기준)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의료·보건·교육·공공서비스업(25.0%), 비즈니스서비스업(17.4%), 인프라서비스업(9.7%) 순으로 나타났다.

로컬서비스업 비중은 2010년 50.2%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양질의 일자리 유형으로 평가받는 비즈니스서비스업은 2010~18년중 약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약 22% 수준인 전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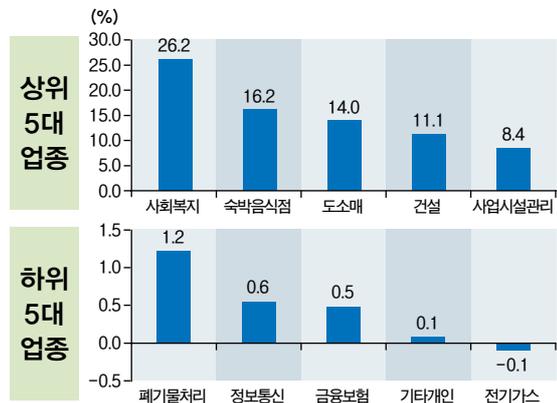
2010~18년중 서비스업 업종별 고용기여율의 경우 사회복지업이 26.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숙박음식업(16.2%), 도소매업(14.0%) 등 로컬서비스 유형의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가스업(-0.1%)은 마이너스 기여율을 기록했으며 비즈니스서비스업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은 각각 0.6%, 0.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유형별 고용비중 변화

구분	(%)			
	동남권		전국	
	2010년	2018년	2010년	2018년
비즈니스서비스	17.0	17.4	22.2	22.6
로컬서비스	50.2	47.9	46.1	44.6
의료·보건·교육·공공서비스	23.6	25.0	22.3	23.6
인프라서비스	9.1	9.7	9.3	9.2

주 : 제조업 내 종사자수 비중
자료 : 통계청

2010~18년중 서비스업 업종별 고용 기여율



주 : 고용기여율은 동남권 제조업 전체 종사자수 증감 대비 업종별 증감
자료 : 통계청

[참고] 산업유형 구분

▣ McKinsey Global Institute, 산업연구원 분류에 따라 산업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

- 제조업

구분	해당 업종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지식집약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주력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노동집약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자원기반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 서비스업

구분	해당 업종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비즈니스 서비스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로컬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의료·보건·교육·공공 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인프라 서비스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업, 건설업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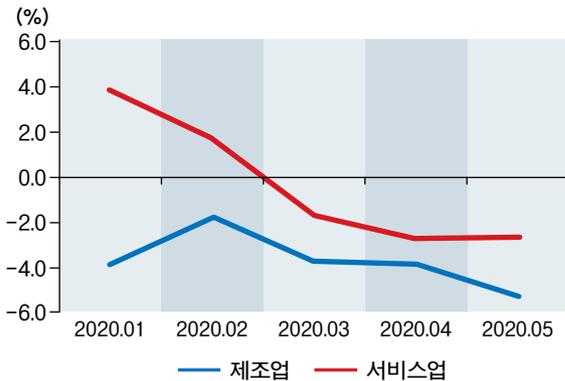
금년중에도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 고용부진 현상 지속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 안정화 노력 시급

동남권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금년 1~5월중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3.8% 줄어들며 서비스업(-0.4%)보다 부진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산업 유형별 종사자수는 의료·교육·공공 서비스업(5.8%), 로컬서비스업(2.1%), 비즈니스서비스업(1.7%) 등 서비스업 부문이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제조업은 노동집약제조업(-3.7%), 자원기반제조업(-2.6%), 지식집약제조업(0.1%), 주력제조업(0.4%) 등 모든 산업 유형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정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 안정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자리 감소와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구직단념, 훈련부족 등으로 이력현상(hysteresis)⁸⁾이 나타나 고용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사간 협력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아울러 직무교육, 취업지원 확대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금년중 동남권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율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금년중 산업유형별 종사자수 증가율



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1~4월중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고용보험 DB

8)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된 고용이 경기회복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이전수준으로 복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현상

[참고문헌]

McKinsey Global Institute, “How to compete and Grow: A Sector Guide to Policy”, 2010.3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 2013.4

한국은행,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2019.6

_____, “최근 부산·울산지역 고용 특징 및 시사점”, 2018.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 2017.9

통계청, www.kosis.kr

한국고용정보원, www.keis.or.kr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6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성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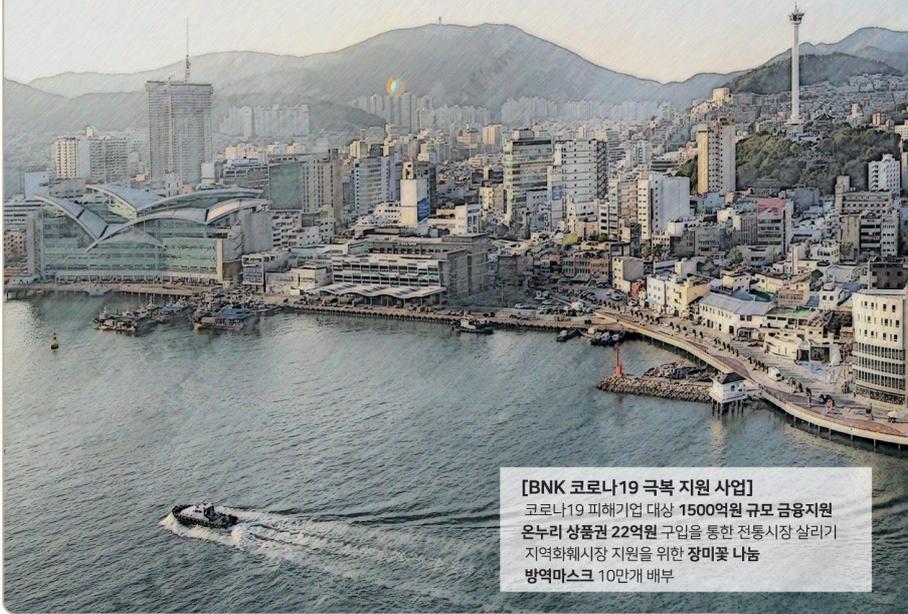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동고동락 -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하다

同苦同樂

BNK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제 살리기를,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앞장서 지원하겠습니다. 늘 지역과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 바로 **BNK**입니다



[BNK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15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은누리 상품권 22억원 구입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
지역화폐시장 지원을 위한 장미꽃 나눔
방역마스크 10만개 배부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벤처투자 BNK 씨프로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0-06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0년 6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